

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자라나는 세대야말로 양계산업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가장 두터운 소비층이 될 수 있으며 또 양계산물은 어떤 축산물보다도 국민 보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단계로 우리나라도 정부정책에 따라 시장 자유경쟁체제를 지향하게 됨에 따라 양계 관련 산업인 사료나 약품 등 대부분의 분야가 품질과 가격, 애프터 서비스 등을 위주로 하는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고 양계인들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양계인은 자신의 지식과 합리적인 경영방침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 후 선택에 임해야 할 것이며, 관련 산업 분야역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양계인들에게 얼마나 경제성과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좋은 제품의 생산과 애프터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1986년도 아시안 게임, 1988년도 올림픽.

결코 멀다고 할 수 없는, 앞으로 3년후에 그

리고 5년후에 치르게 될 이 두가지 큰 국제경기를 앞두고 모든 산업이 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비약적 경제발전을 지향한 당연한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어느 면으로보나 도약의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양계산업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양계산업의 이러한 도약단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몇가지 조건의 선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예컨대 양계 전반에 걸친 충분한 시장상황, 사양, 질병 등 최신 지식의 보급, 유통구조의 시급한 개선, 관련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방역관리의 체계화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꾸준하고 미래 지향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한다.

성장을 해야할 시기에는 충분히 성장을 하여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발판을 굳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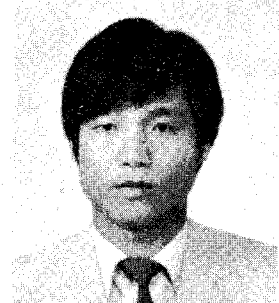
아무쪼록 양계인 모두 힘을 합쳐 시대에 부응하는 양계산업이 되도록 노력하자.

계해년 새해 아침에.

## 생산비 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생산자재를 이용하는 지혜가

유 재 복

(선진사료(주) 영업과장)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또 한해가 가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매년 년초에 겪는 일이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지난 해를 돌이켜 보

고 새해를 설계해 본다.

82년은 나에게서는 꽤 행운의 해라고 생각되어 지지만 양계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혹시”하던

것이 “역시”로 결말되어진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진다. 난데없이 나타난 ILT의 급습은 지금도 가슴아프지만 그 덕택에 덕본 몇몇 채란업자들을 보고 그나마 위안을 삼게 됨이 더욱 가슴아픈 한 해였다.

또 육계하신 분들도 기대이상의 수입을 얻지 못한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보면 양계가 역시 안되는 사업이구나 생각되어지지만 축산 이외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래도 양계사업이 비전이 밝다는 생각이 들어 몇몇 양계를 위한 소망을 적어본다.

먼저 사료업계 측면에서의 소망은 첫째 83년에는 사료회사와 양축가가 공존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사료회사는 양축하는 양계인의 입장에서 좀더 스트레스를 줄이고 닭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사료를 생산하여 꾸준히 공급해야 되겠고 양계업자는 사료회사가 정상적인 경쟁하에서 양질의 사료를 생산, 공급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는 풍토가 되도록 좀더 생각하여 사료를 선택, 거래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다보면 사양가는 좀더 생산비를 낮출 수 있고 생산물인 계란이나 계육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 공급하게 되며 이에 따라 소비도 촉진되어 양계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둘째로 83년에는 사료회사들이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채란업계의 불황을 사료회사의 무모한 외상경쟁으로 돌리는 분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고 사실 그로인한 이유도 무시할 수 없기에 83년에는 양축가에게도 유리하고, 사료회사도 지탱할 수 있는 품질경쟁의 판매경쟁이 되어 지난 몇년간 도산한 여러 회사의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세째로 83년에는 사료가격이 안정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사료가격은 원재료비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몇년간

계속된 양계불황으로 보아 사료가격의 인상은 결코 즐거운 일이 못될 것이다.

다음 양축가 입장에서의 바램을 생각해 보면 첫째, 생산비 극소화방안이 연구 검토되고 실제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제 생산비 감소 방안은 사양가 입장에서는 “사양관리개선” 측면에서 찾아주었으면 좋겠고 학계와 업계의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요구되는 것이 양계인 스스로의 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싼 병아리, 싼 사료, 싼 약」의 개념에서 「효율적인 병아리·사료·약」의 생각으로 경영방침을 변경, 진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83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둘째, 양계 생산물의 적절한 가격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82년에 육계 분야에는 대규모 도계장이 건립되었고 도계품 유통을 강력 실시키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지만 아직 유통상 문제는 많은 것이 사실이고 채란분야도 예전과 같이 난가가 등락하여 경영상 타격이 심했던 한 해였고 보면 83년에는 정말 무엇인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세째, 83년에는 양계인 전체가 단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간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양계인은 단합되어야 한다고 얘기되어 왔고, 사실 그에 따라 많은 양계인 모임이 결성되고 그의 활동도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도 내실로 뭉쳐진 단체가 몇개이고 그 단체들이 양계 발전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는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호황 덕을 보긴 했지만 양돈인들이 뭉쳐 나름대로 불황을 이겨가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일단 양계인 모두 자성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새해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양계인들의 활동을 기대해 보고 끝으로 양계인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한다.